

신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원스톱

전북대 고명환 교수팀, '고관절 보호대' 기술이전

전북대학교 고명환 교수(의대 재활의학과)가 '고관절 보호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3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기술이전에 성공한 '고관절 보호대'는 재활의학과 고명환·김기욱 교수, 정형외과학교실 윤선중 교수팀의 연구 결과로, 고관절 수술 후 환자의 빠르고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이다.

'고관절 보호대'는 기존의 착용감이 불편한 금속형 보호대와는 달리, 팽창 튜브를 통해 인체 형상에 맞게 밀착시켜 고관절 부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고관절에 부가되는 하중을 감소시키고, 대퇴부의 과도한 관절 운동을 적절히 제한해 수술 후 고관절의 상해 재발 위험을 감소시키고 빠르고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보호대다.

이와 함께 고 교수팀은 2018년에는

포항공대의 유희천 교수 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언어장애를 가진 환자를 위한 '언어치료용 기능성 게임 및 비음치 측정기술'을, 그리고 2017년에는 치매와 뇌질환 환자에서 야기되는 인지기능 저하 및 손 기능 저하의 회복을 위한 '가변형 도구 모듈을 적용한 가상현실 재활훈련 장치' 기술을 개발, 재활의료기기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화 돼 현재 의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고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인 '재활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병원 간 긴밀한 '산·학·연·병'의 결과물이다.

관계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과 효능 검증, 그리고 제품 인허가 및 최종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주

기를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끌고 나간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북대병원의 자체 연구사업인 '보건의료 R&D 임상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육성 사업'의 지원도 이러한 기술이전 성과를 얻는데 주요 견인차가 됐다.

고명환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의 재활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국내 재활의료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 품목허가, 특허, 임상시험, 의료자문 등도 지원하고 있다"며 "활발한 첨단 의료기기 개발 연구를 위해 산·학·연·병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히 하여 연구자들의 임상 현장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기업으로부터 글로벌 최고의 의료기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형 인재 길러내는 SW교육 강화

전북교육연구정보원, '학교로 찾아가는 SW교육' 진행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은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길러내자는 계획이다. 10일 연구정보원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SW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협력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단위 학교 중심의 SW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보원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사 2명으로 강사진을 꾸려 '학교로 찾아가는 SW교육'을 진행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SW교육은 지난 2일 정읍 덕전초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9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정보원은 SW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원거리 학교, SW 소의

지역 소규모학교, 교육복지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SW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5일까지 수업에 참여한 학생 40명 중 88%(35명)이 재미있었다고 응답했고, 55%(22명)는 수업을 받고 나서 SW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 '체험활동으로 교육을 받으니 SW 이해가 더 잘 됐다', '레고로 코딩개념을 한 게 인상깊었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이와 함께 정보원은 초등 4~6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SW교육 아카데미', 유·초·중·고 학부모 120명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SW교육 아카데미'도 6월과 9월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춘계전국중고검도대회, 15일 전주서 개최

산불로 고성서 전주로 변경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10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제1회 춘계전국중고검도대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대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형 산불이 발생,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의 요청으로 전주에서 열리게 됐다. 이에 도 체육회와 전북

검도회는 산불로 인해 대회를 부득이하게 치르지 못하게 된 강원도의 뉘까지 최선을 다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할 방침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먼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강원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세미나와 워크숍 등이 있을 경우 강릉과 고성, 속초, 동해 등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내일부터 독서문화행사 추진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제55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내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주간 행사로 그림책 콘서트, 서현 작가와의 만남, 팝아트체험, 원화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내일 극단 노를을 초청해 서현 작가의 '눈물바다' 그림책을 클래식과 연극으로 표현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신개념 '그림책 콘서트'를 운영한다. 13일과 27일에는 그림책 팝아트 체험이 마련됐으며, 오는 5월 중순에는 '눈물바다', '간질간질', '커졌다' 저자인 서현 작가를 모시고 작

가와의 만남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내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읽고 싶은 희망도서를 동네 서점에서 새책으로 바로 대출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행사 기간 동안 1인 1회 총 2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방법과는 달리 읽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기대가 되는 서비스이다.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책을 통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난 9일 전주대학교 도서관에서 '모니카, 모니카'의 저자 황보운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수퍼스타 독서클럽'에서 기초학습 능력과 창의력 쑥쑥!

전주대 도서관, 황보운 작가와 만남시간 가져... 폭넓은 독서활동 기회 제공

지난 9일 전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모니카, 모니카'의 저자 황보운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대 독서 프로그램, '수퍼스타 독서클럽' 일환으로 진행된 황보운 작가와 만남은 2019년 1학기 독서클럽에 참여하는 3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보운 작가는 그녀의 두 번째 창작집, '모니카 모니카'를 설명하고

독자들과 질의응답 및 이야기를 나누는 후 사인회를 가졌다.

황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다양한 갈등 요소를 형상화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 고찰하고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내면 심리를 하나씩 파헤쳐 간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관계의 미학을 설명했다.

전주대 천강현 학생(수학교육과)은 "평소 작가와 대화하는 기분으로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의도와 생각

이 많이 궁금했었다. 이번 기회에 궁금증도 해결하고 책을 통해 작가와 소통하는 법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황보운 작가는 2006년 동서커피문 학생 대상, 2009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며, '로키의 거짓말'과 '두 번 결혼할 법', '마지막 식사' 등의 저서가 있다. 현재는 남원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한편, 전주대 도서관은 2012년부터

'수퍼스타 독서클럽'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독서활동 능력과 기초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수퍼스타 독서클럽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팀을 나누어 책을 읽고,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독서기행, 작가와의 만남,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